

해외 지역혁신체계 우수사례 연구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9박 10일의 짧지 않은 여정 내내 가슴 한 켠에 작은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란 다른 아닌 “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 看則畜之而非徒畜也”라는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지역에 대한 사전공부 없이 무라무라 짐을 챙겨 여정을 떠난 탓으로 돌리며, 공식적으로 방문했던 기관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에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Parque Cientifico de Madrid

■ 개요

- 위치 : campus de cantoblanco 내
- 형태 : 마드리드 2개 주립대 연합
- 업 태 : 비영리 재단
- 조직 : 임원 8명, 회원 20명
- 기능 : 창업보육
- 면 적 : 9,500㎡



Parque Cientifico de Madrid

Parque Científico는 Madrid내 2개 주립대학이 주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마드리드 시청, 상공회의소, 주정부 등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비영리 재단의 특성상 재정자립기반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총 재정의 47%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8%는 주요 후원자들에 의해, 17%는 공공행정분야, 9%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보육센터 내 인적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박사학위 보유자 25명, 전문가 70명, 라이선스 보유자 22명 등 총 117명의 전문인력이 창업보육센터 내 기업들에 대한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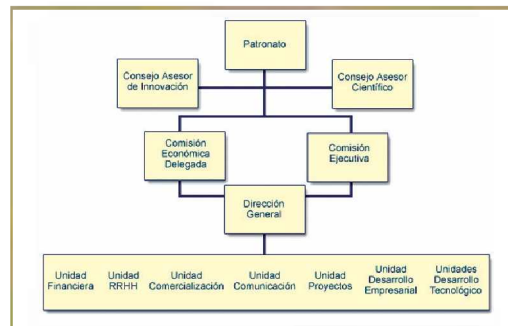
인큐베이팅센터 내 인적자원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박 사	9	11	25
전문가	28	35	70
라이선스 보유자	7	9	22
합 계	44	55	117

아울러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원자(20인), 과학기술상담(10인), 재정상담(10인), 업종위원회, 총사무국장 및 하부구조로서 대외업무담당(15인)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Parque Científico내 창업보육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의 구체적인 과정은 우선 창업 전 1년 동안 심의평가를 통해 수익성확보 측면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한 후 후원자들이 금융 및 재정지원과 관련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두 대학이 기업의 국제화 및 새로운 동반 기업의 탐색지원을 담당하여 해당 기업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중인 기업은 장비 및 시설물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창업과 관련한 서비스업무, 재정상담, 실습, 기술경비, 기업간 연계, 통신서비스, 세금 관련 법적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는 '03년 10개



Organigrama del PCM(조직도)

기업, '04년 11개 기업, '05년 28개 기업, '06년 42개 기업을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등 매년 성장 추세에 있다.



창업보육센터 방문기념



창업보육센터 내 연수중

■ 시사점

Parque Científico de Madrid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은 국내 테크노파크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사업”과 매우 유사한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입주기업의 성과부족, 자금부족, 인력부족, 공간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대학의 관심과 재정지원의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Madrid내 2개 주립대학의 역할과 총 재정의 47%를 자체 충당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창업보육센터가 벤처창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BI 매니저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BI매니저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업무들의 경우에는 대학 내의 교수들과 외부의 전문인력 풀(pool)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자립확보와 창업보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Euroimmobiliare Legnano S.R.L(Tecnocity alto milanese)

■ 개 요

- 위 치 : 밀라노 북서부 Legnano지역
- 형 태 : Euroimmobiliare, Euroimpresa
(비영리 재단)
- 설 립 : 1996년
- 기 능 : 산단재생 및 고용지원, 인증,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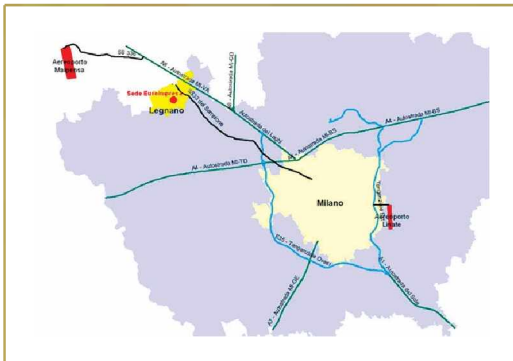


Tecnocity alto milanese

밀라노 북서부 Legnano지역은 1950년 이전에는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쇠퇴하였고 최근에는 EU의 보조하에 산단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롬바르디아주가 산단재생계획을 검토하여 EU에 제출하면, EU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롬바르디아주에 자금을 제공하는데, 이 자금을 토대로 Euroimmobiliare와 Euroimpresa 두 기관이 주축이 되어 산단재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기관의 주요목표는 하이테크를로지 기업육성, 제품보증, 신아이디어 창출기업 지원 등이며, 현재 테크노시티 내 50여개 중소기업이 450명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테크노시티는 기존 산단을 재건축하여 복합단지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총 4년이 소요되었는데,



Legnano지역 위치 및 항공사진

재건축 및 설비마련에 소요된 총 경비 3천만\$ 중 2천만\$ EU에서 지원받아 입주기업들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로 식당, 유지원, 주거시설 등을 갖추었다.



Tecnocity(안내도)

테크노시티 내에는 고용관련 구직지원 기관인 Euro lavoro가 입주해 있는데, 동 기관의 주요업무는 구직노동자와 기업을 연계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대학졸업자의 구직컨설팅 및 50개 지역인구 45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통계를 생성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Euro lavoro외에 유사한 기능의 Centro per Impiego가 입주하여 실업자의 고용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업자가 동 기관에 실업 등록을 하게 되면, 능력 및 자격증 소유여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재취업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상담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Centro per Impiego와 Euro lavoro의 차이점은 전자가 국가공무원 조직인데 반해, 후자는 밀라노주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테크노시티 내에는 건축신소재 연구센터가 이태리 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되어 있으며, 동 기관은 비파괴검사를 통해 제품의 보증 및 인증기능을



Euroimmobiliare Legnano S.R.L
관계자 브리핑

담당하고 있다. 동 기관은 지금까지 3만개 이상의 제품을 보증하는 성과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용접교육→시험→자격증부여 등 교육기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시사점

지역산업의 쇠퇴로 말미암아 침체를 겪었던 Legnano지역이 다시 산업이 활성화된 주요계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 육성에 있었으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고용, 교육, 창업 등
 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이 현대화되고 경제적 성과를 높
 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방향이 주요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할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하위조직들이 지역경
 제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성과 학습네트워크로 묶어주는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동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영리기관
 인 Euroimmobiliare와 Euroimpresa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린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
 가 국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③ Sophia-antipolis

■ 개 요

- 위치 : 코트다쥐르(Cote d'Azur)
- 주체 : 프랑스정부, 니스상공회의소
- 설립 : 1973년 단지준공
- 기능 : 첨단산업 연구단지
- 규모 : 2,300ha(업무지구650ha, 주거·상업지구
 150ha, 녹지1,500ha)



Sophia-antipolis

Sophia-antipolis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적
 으로 조성한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연구단지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니스와 칸느 사이 코트다

쥐르(Cote d'Azur)에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은 사회·경제·문화 등 제 측면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경관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지역경제는 낙후된 실정이었다.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파리국립광산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Paris)의 Pierre Laffitte학장은 국립 및 민간 연구소, 기업 등을 파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도시(소피아 앙티폴리스)로의 이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Sophia-antipolis의 개발주체인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발주식회사'는 개발 당시 자연과의 조화, 여유로운 생활, 새로운 지식의 창조 등 3개의 전략을 융합한 저밀도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총 개발면적 2,300ha 중 녹지공간이 전체면적의 65%(1,500ha)

에 달할 정도이며, 단지 내 입주하는 사업소에 건폐율 45%이내, 건물의 높이, 건물의 색채, 주차장 경관, 펜스 설치금지 등과 같은 엄격한 건축규제를 적용할 정도로 환경을 중시하였다.

또한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태양 에너지를 이용토록 유도하였으며, 최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업체간 격리배치 및 환경 침해적 산업의 입주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 조성하였다.

Sophia-antipolis는 SYMISA와 SAEM이라는 두 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SYMISA는 니스 상공회의소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사회 성격을 가진 협회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SAEM은 지방정부, 지역상공회의소, SYMISA가 공동투자해서 설립한 단지관리기관으로 SYMISA의 결정내용을 시행하고 시설개발 및 건축, 국제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ophia-antipolis 내 기업입주 현황(2004)을 살펴보면, 단지 내 입주한 총 1,276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체이며,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업체는 전체 기업의 23%와 고용의 43%를 차지하여 최대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 및 화학관련 업체는 전체 기업의 4%와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연구 및 인력훈련기관이 업체수의



Sophia-antipolis 내 학교 및 주거시설

5%,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계열은 전자기술 분야, 의료·바이오 기술 분야, 에너지 분야, 교육·훈련 분야 등으로 세분되며 국립 및 민간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다.

■ 시사점

Sophia-antipolis의 성공요인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분산정책과 Pierre Laffitte학장의 주도적 역할, 현지 상공회의소의 적극적 참여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 둘째, 천혜의 자연 환경 조건을 활용한 개발구상 아래 엄격한 환경 및 건축규제 등을 적용하여 과학단지로서의 매력을 제고시켰다. 셋째, DATAR 해외조작장과 세계적인 기업컨설팅 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지역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첨단기술 관련 전시회 등을 포함한 각종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시켰다.

결론적으로 Sophia-antipolis의 성공으로 인해 프랑스는 파리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성공적으로 분산시켰으며, 지방도시가 지식기반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사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Sophia-antipolis 내 SAEM 방문



Sophia-antipolis 내 입주기관 및 기업전경